

## 2022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공연예술 분야 】 심의평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의 개인과 단체 분야 모두 예술적 역량과 추진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작품 내용의 우수성과 예술성,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4인의 심사위원이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은 함께 심의한 ‘원로 예술활동 지원’에도 해당한다.

먼저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의 개인과 단체를 심사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음악은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에 비례하여 선정 건수도 가장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이라는 대장르 하에 클래식 음악, 국악, 대중음악 등 여러 소장르에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창작보다는 재연적 성향이 강한 클래식 음악의 경우 기획력과 창작력을 수반한 공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국악은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을 수반한 작품을 선정했다. 대중음악의 지원도 눈에 띄었으나 전반적으로 기획안 작성과 기획력이 높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연극의 경우 창작물이 많았고, 미리 완성한 대본을 첨부한 지원자들도 볼 수 있었다. 추상적인 소재보다는 현실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동시대 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음악이나 무용과 협업한 작품도 눈에 띄었는데, 타 장르와의 협업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극이 눈에 띄 정도로 많았는데, 관객 타깃 선정에 있어서는 좋은 사례였으나 창작이나 기획력보다는 유아·어린이 관객의 눈높이에만 맞춘 지원작들이 많았다.

무용은 지원 건수가 가장 적은 장르였다. 한국무용이나 발레의 경우 특별한 안무력이나 예술성보다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군무를 선보이는 지원작들이 보였고, 현대무용은 동시대를 소재로 하되 이미 많은 예술가가 다룬 기존작품들과 비교해 볼 적에 차별점이나 특별한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었다.

2022.5.9.

심의위원

송현민 (음악평론가)

김남수 (<몸> 편집장)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예술감독)

박정호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